



05. ㉔의 독음은?

- |     |     |
|-----|-----|
| ① 열 | ② 설 |
| ③ 세 | ④ 시 |
| ⑤ 태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16)

夫釋縛脫艱 全眞導氣 ①拯黎元於仁壽 濟羸劣以獲安者 非三聖道卽不能致之矣. 孔安國序<尙書>曰: 伏羲神農黃帝之書 謂之三墳 言大道也. 班固<漢書藝文志>曰: <黃帝內經>十八卷. <素問>卽其經之九卷 兼<靈樞>九卷乃其數焉.

雖復年移代革 而授學猶存 懼非其人 而時有所隱 故第七一卷 師氏藏之 今之奉行 惟八卷爾.

然而其文簡 其義博 其理奧 其趣深 天地之象分 陰陽之候列 變化之由表 死生之兆彰 不謀而遐②( ) 自同 勿約而幽明斯契 稽其言有徵 驗之事不忒 誠可謂至道之宗 奉生之始矣.

假若天機迅發 妙識玄通 藏謀雖屬乎生知 標格亦資於 ③訓( ) 未嘗有行不由④( ) 出不由⑤( )者也. 刻意研精 探微索隱 或識契眞要 卽目⑥( )無全.

故動卽有成 猶鬼神幽贊 而命世奇傑 時時出焉. 卽周有秦公 漢有淳于公 魏有⑦張公華公 皆得其妙道者也. 咸曰新其用 大濟蒸人 華葉遞榮 聲實相副 蓋教之著矣 亦天地之假也.

氷弱齡慕道 夙好養生 幸遇眞經 式爲龜鑑. 而世本紕繆 篇目重疊 前後不倫 文意懸隔 施行不易 披會亦難 歲月既淹 襲以成弊. 或一篇重出 而別立二名; 或兩論竝吞 而都爲一目; 或問答未已 別樹篇題; 或脫簡不書而云世闕; 重<經合>而冠鍼服 併<方宜>而爲<咳篇> 隔<虛實>而爲<逆從> 合經絡而爲論要

節<皮部>爲<經絡> 退<至教>以先鍼 諸如此流 不可勝數.

且將升岱嶽 非徑奚爲 欲詣⑧扶桑 無舟莫⑨適. 乃精勤博訪 而竝有其人 歷十二年 方臻理要 詢謀得失 深遂夙心. 時於先生郭子齊堂 受得先師張公秘本 文字昭然 義理環周 一以參詳 群疑氷釋.

恐散於末學 絕彼師資 因而撰註 用傳不朽 兼舊藏之卷 合八十一篇 二十四卷 勒成一部.

冀乎究尾明首 尋註會經 開發童蒙 宣揚至理而已. 其中簡脫文斷 義不相接者 搜求經論所有 遷移以補其處. 篇目墜缺 指事不明者 量其意趣可者以昭其義. 篇論吞竝 義不相涉 闕漏名目者 區分事類 別目以冠篇首. 君臣請問 禮儀⑩乖失者 考校尊卑 增益以光其意. 錯簡碎文 前後重疊者 詳其指趣 削去繁雜 以存其要 辭理秘密 難粗論述者 別撰<玄珠> 以陳其道. 凡所加字 皆朱書其文 使今古必分 字不雜亂.

庶厥昭彰聖旨 敷暢玄言 有如列宿高懸 奎張不亂 深泉淨澄 鱗介咸分 君臣無夭枉之期 夷夏有延齡之望. 俾工徒勿誤 學者惟明 至道流行 徽音累屬 千載之後 方知大聖之慈惠無窮. 時大唐寶應元年歲次壬寅序. < ⑪ >

06. ①拯黎元於仁壽를 해석하시오.

07. 遐②( )에 들어갈글자로 近자와 동의어다. 쓰시오.

08. ③訓( )에 한글자를 넣는다면?

09. ④( )에 들어갈 글자는?

10. ⑤( )에 들어갈 글자는?

11. ⑥目( )無全. 에 들어갈 글자는?

12. ⑦張公.華公은 각각 누구인가?

13. ⑧扶桑의 뜻은?

14. ⑨適의 뜻은?

15. ⑩乖의 讀音은?

16. 이글의 지은이는?

< 明心寶鑑 > ( )에 맞는 글자를 쓰시오.(17-30)

17. 性理書云, 接物之要, 己所不欲, 勿施於( ), 行有不得, 反求諸( ).

18. 子曰, 立身有義而( )爲本, 喪祀有禮而( )爲本, 戰陣有列而( )爲本, 治政有理而( )爲本,

19. 居國有道而( )爲本, 生財有時而( )爲本.

20. 景行錄云, 爲( )之要, 曰公與清。成( )之道, 曰儉與勤。

21. 讀書起家之本, 循( )保家之本, 勤儉治家之本, 和( )齊家之本。

22. 孔子三計圖云, 一生之計在於( ), 一年之計在於( ), 一日之計在於( )。幼而不學, 老無所知, 春若不耕, 秋無所望, 寅若不起, 日無所辦。

23. 性理書云, 五教之目, 父子有親, 君臣有義, ( )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三綱, 君爲臣綱, 父爲子綱, ( )爲婦綱。

24. 王蠋曰, 忠臣不事二( ), 烈女不更二( )。

25. 忠子曰, 治官莫若( ), 臨財莫若( )。

26. 張思叔座右銘曰, 凡語必忠信, 凡行必篤敬, 飲食必慎節, 字劃必楷正, 容貌必端莊, 衣冠必肅整, 步履必安詳, 居處必正靜, 作事必謀始, 出言必顧行, 常德必固持, 然諾必重應, 見善如( )出, 見惡如( )病, 凡此十四者, 皆我未深省, 書此當座隅, 朝夕視爲警。

27. 范益謙座右戒曰,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 )之事,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범익겸의 좌우계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의 보고(報告)와 벼슬자리에 파견되고 제수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 주현(州縣) 관원(官員)들의 장단(長短)이나 득실(得失)을 말하지 말라. 셋째, 못사람들이 짓는 바, 과실과 악행의 일들을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벼슬하여 나아가고, 또는 시세를 쫓고 부합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다섯째, 재물의 이익이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富)를 구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란하며 외설적이고 희롱하며 업신여기는 것과 여색을 논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

又曰, 一人付書信不可開拆沈滯, 二與人并座不可窺人私書, 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 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 五凡喫飲食不可揀擇去取, 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 七凡人富貴不可歎羨詆毀, 凡此數事有犯之者, 足以見用心之不肖, 於存心修身, 大有所害, 因書以自警。

또 이르기를, 첫째, 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서는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자들을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무릇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무릇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여섯째, 남과 같이 처할 때는 편리를 스스로 가려서는 안된다. 일곱째, 무릇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홍보고 헐뜯어서는 안된다. 무릇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씀씀이가 불초(不肖)하여 존심(存心)과 수신(修身)에 해로운 바가 크게 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以) 스스로 경계하노라.

28. 武王問太公曰，人居世上，何得貴賤貧富不等，願聞說之，欲知是矣。太公曰，富貴如聖人之德，皆由天命，富者用之有( )，不富者家有十盜。
29. 武王曰，何爲十盜。太公曰，時熟不收爲一盜，收積不了爲二盜，無事燃燈寢睡爲三盜，慵懶不耕爲四盜，不施工力爲五盜，專行巧害爲六盜，養女太( )爲七盜，晝眠懶起爲八盜，貪酒嗜慾爲九盜，強行嫉妬爲十盜。
30. 武王曰，家無十盜，不富者，何如。太公曰，人家必有三耗。武王曰，何名三耗。太公曰，倉庫漏濫不蓋，鼠雀亂食爲一耗，收種失( )爲二耗，拋撒米穀穢賤爲三耗。